



한암(漢岩) 선사(禪師)의 편지 (14)

“편지를 산중 보배로 삼겠네”

제자 탄허에게 보낸 답서

보내온 글을 거듭 읽어보니 참으로 좋은 일단의 문장이요 필법이네. 구학문(舊學問, 漢學)이 파괴되어 가는 이 때에 그대의 문장을 보니 기지(機智)와 표현, 그리고 의미가 대단하네. 어쩌면 이리도 불승(佛僧, 韓僧)을 매혹시키는가. 먼저 보내온 편지(1차 서간)와 함께 여기 남겨두어 산중의 보배로 삼고자 하네.

공(公, 탄허)의 제주와 덕은 비록 옛 성현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찬미하여 마지않을 것이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있어도 없는 듯이 하고, 가득 차 있어도 비어있는 듯이 하니, 어느 누구도 그 고매한 모습을 경양(景仰)하지 않겠는가.

나는 평소(時)에 시(詩)는 잘 읊지 못하지만 이미 마음달이 서로 비추었으니 잠자코 있을 수만은 없기에 거친 글을 지어 보내니, 받아보고 한 번 웃으시게.

한 암

이 편지는 제자 탄허 스님에게 보낸 두 번째 답서이다.

내용은 탄허 스님의 문장을 극찬하고 있다. 그런데 단순히 문장만 극찬하는 것이 아니고, 기지(機智)와 표현, 그리고 의미도 대단하다는 말씀이다.

“어쩌면 이리도 불승(佛僧, 韓僧)을 매

제자의 문장에 감탄, 극찬

탄허와 사제 인연 예견

혹시시키는가. 먼저 보내온 편지(1차 서간)와 함께 여기 남겨두어 산중의 보배로 삼고자 하네.”라는 말에서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런데도 더욱 겸손하니 그대의 학문과 인격은 모든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대상이라는 것이다. 한암선사는 제자 탄허 스님이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시냇물로 “뽕” 하겠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마음달이 서로 비추었으니 잠자코 있을 수만은 없기에 거친 글을 지어 보낸다”는 대목은 지음자가 되었음을 뜻하고 있다. 장래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맺어지게 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이 편지 역시 원본도 복사본도 없고 보낸 날짜도 없다.

탄허 스님이 입산(1934년)하기 이전이므로 1932년~1934년 사이에 보낸 서간이다. 탄허 스님이 외우고 있다가 제자들이 받아본 것이니.

서울 칠보사 석주(昔珠)스님에게 보낸 답서

오늘 보낸 편지에서 은사 화상님(南泉스님)이 입적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더없이 놀랍고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직접 가서 조문하지 못하니, 실로 평소(時)에 서로 경애(敬愛)하는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 또한 오랫동안 병으로 침거하고 있어서 뜻대로 가지 못하는 형편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법망경)에 토(吐)를 달아 달라고 부탁했는데, 오늘 겨우 마쳐서 보냈습니다. 상권의 글 뜻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참으로 글을 읽기가 어려워 억지로 붓을 대어 토를 달았습니다. 후시라도 성현(聖賢)의 뜻에 맞지 않는 곳도 있을 수도 있으니, 깊이 연구하고 또 생각하여 다른 고명한 선지식에 묻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만 줄이었고 답서를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병자(1936년) 5월 5일

도우(道友) 한암은 절하고 답서를 올립니다.

이 편지는 서울 칠보사 석주(昔珠)스님에게 보낸 답서로, 1936년에 보낸 편지이다. 내용은 석주스님의 은사(恩師)인 남전(南泉, 1868~1936)스님 입적하셨는데도

남전 스님 다비식 불참 양해 부탁

“법망경” 토달기 너무 어려워

다비식에 참석하지 못해서 매우 미안하다는 것이다.

남전스님과는 평소 교류를 갖고 있었고, 그 제자 석주 스님과도 잘 알고 있는 터였다. 석주 스님이 토를 달아달라고 부탁한 경전은 <법망경>인데, 법망경 상권의 내용이 매우 어려워 토를 달는데 힘이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솔직하신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남전 스님은 한암선사보다 여섯 살 위이다. 선배이기도 하지만 남전 스님은 대단한 선승이었다.

선학원 창건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특히 남전 스님의 묵(墨, 글씨)은 근대 고승 가운데는 탁월했다고 할 수 있다. 현존하는 남전 스님의 글씨는 보기 극히 드물다.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호불 흥법은 불교 언론의 의무 대중교화 콘텐츠 개발해야”

불교 언론 기자 1호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

“불교언론은 모름지기 불교의 장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매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대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 대중들에게 환희심을 일으키는 동시에 불법흥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호불 흥법(護佛弘法)이라 표현하고 싶어요. 불교를 지키고 널리 알리는 것이 불교 언론의 의무죠.”

현대불교 신문 지령 1천호 특집을 맞아 불교언론 1호 기자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를 만났다. 송 교수는 1964년 조계종 종단지 대한불교(현 불교신문)의 첫 공채기자로 입사해 불교언론의 기틀을 다졌다. 대한불교 기자·편집국장·주간·논설위원, <불교사상> 주간 등을 역임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송 교수를 통해 불교언론의 역사와 역할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았다.

동대 학보사에 들어가다

송 교수는 어린 시절 충남 태안 안흥의 태국사 인근에서 자랐다. 할아버지가 스님인 까닭이었다. 유학자였던 할아버지는 자식 셋을 두고 어느날 홀연히 집을 떠나셨고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와 샷샷을 벗으니 사발이었다. 그 시간 동안 마곡사에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 수행을 해왔던 것이다. 태국사는 그의 할아버지가 주지로 있던 절이었고 그 인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송 교수는 친구들에게 ‘중종 까까중’이라는 별명을 받아야 했다.

태국사가 위치해 있던 안흥은 갯벌이 있던 어촌마을로 주민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기가 어려웠다. 할아버지는 청년들을 모아 천자문을 가르쳤고 어린 송 교수는 그 언저리를 맴돌며 어깨너머로 천자문을 익혔다. 하지만 6.25 동안 당시 할아버지는 장터푸스로 사망했고 그의 집안도 용인으로 이사해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다. 중고등학교 시절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그는 용인의 수재로 통했고 문학청년을 꿈꾸었다. 담임선생에게 문학의 길을 가고 싶다고 말하자 담임은 동국대 불교학과를 권했다. 고등학교를 다니던 3년 내내 우등생이었던 그는 동국대를 들어가면 1년 장학금을 면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망설였다.

“당시 담임선생님은 저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문학을 하려면 불교사상을 알아야 한다고 동국대를 권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할아버지가 스님이셨기에 불교

학과에 들어가면 불교 집안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담임선생님의 조언을 받아들여 불교대 철학과를 선택했어요. 당시는 철학과가 불교대에 소속되어 있었죠. 그래서 불교와 철학을 동시에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불교학과 보다는 철학이 덜 불교적이라 생각했죠. 나름의 타협이었어요. 또한 학비가 면제 되니 집안 어른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 이유로 결국은 동국대에 입학했으니 저의 운명은 불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없는 것이었나 봐요.”

스님이었던 할아버지 따라

태안 안흥 태국사 근처서

불교문화 몸소 체험하며 성장

동국대 입학 불교·철학 공부

동대신문 기자로 4.19 등 취재

‘대한불교(불교신문)’ 기자로 입사해

편집국장·주필 등 역임

불교의 대중화·현대화 위해

월간 <불교사상> 창간

어린시절 집안의 영향으로 그는 늘 불교 속에서 자랐다. 주변에는 항상 불교 잡지가 있어 흔히 읽을 수 있었고 고등학교 시절 이광수의 <원효대사>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기도 했다. 이 모두가 절집안의 손자로 태어났기에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였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스님이라고 놀림 받던 것이 상처가 되기도 했기에 불교학과보다는 철학과에 마음이 더 갔다고. 이렇게 대학에 입학하자 그에게 또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동대학보사에 기자모집 공고였다.

당시 급료가 나왔던 동국대신문사의 기자는 경쟁이 치

열했다. 무려 70대 1의 경쟁을 뚫고 동국대신문사 기자로 당당히 들어갔다. “당시 4명이 신입기자로 뽑혔는데 방송작가로 고승열전 시리즈를 쓴 윤정광 등이 동기였어요. 정말 4년을 열심히 취재하고 신문을 만들었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4.19민주항쟁과 5.16군사정변 등이 일어났죠. 역동의 세월 속에서 학보사 기자로 현장을 누비고 다녔어요. 특히 제가 입사 4일만에 4.19가 터졌는데 저는 학생으로 데모대에 참가하면서 기자로 취재를 겸했죠. 제 생애 최초로 쓴 기사가 1면 톱으로 가는 영광을 안았죠. 제목은 ‘피 묻은 민권은 민주주의로 가다’로 기억합니다.”

‘대한불교(현 불교신문)’ 공채기자 1호

이렇게 학보사 기자로 4년 동안 치열하게 현장을 누빈 송 교수는 해외특파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대학 졸업과 동시에 대한불교 기자를 선택한다. “당시 경향신문 1차 시험에 불교 2차 면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한불교 기자 공고가 나왔어요. 당시 김동일의 서울대 병원장, 서도갑의 서울대 법대 교수 등 많은 불자들이 취재했었어요. 이런 분들이 저의 신문에 나오자 독자들도 매우 흡족해 했고 불교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기뻐했죠. 저도 덕분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불자들을 만나는 기회를 얻었죠.”

대한불교 신문은 불교에 대한 포교와 흥법 그리고 불교의 대중화와 현대화에 기여하고 한국불교의 입장을 사회에 대변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다. 그가 기자로 근무한 4년 동안 가장 보람되게 생각한 취재가 바로 ‘숨은 불자를 찾아서’다.

“당시 불교는 치마불교 보살불교라는 말로 폄하를 당했죠. 저는 분명 신심이 깊은 지성인들도 있을 텐데 드러나지 않은 거라 생각하고 교양과 지성을 갖춘 불자들을 찾아다니는 기획을 하게 됐죠. 첫 취재가 바로 김용배 육군참모총장이었고 이후 김동일의 서울대 병원장, 서도갑 서울대 법대 교수 등 많은 불자들을 취재했었어요. 이런 분들이 저의 신문에 나오자 독자들도 매우 흡족해 했고 불교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기뻐했죠. 저도 덕분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불자들을 만나는 기회를 얻었죠.”

또한 그는 조계종 5대 종정 효봉 스님의 입적 당시 법구(法龜)라는 말을 최초로 고안해 내기도 한다. “당시 스님께서 입적하셨을 때 스님의 시신을 무엇이라 불러야



1970년 해안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과 함께



동대 전산원 원장으로 이사장 일행과 자매교인 일본 동북전자 전문학교 방문



월간지 '불교사상' 창간호 표지

지장보살님께서 대한민국 대구에 무량의 가피를 드리우시다!!

현지사 대구분원은 왜곡된 세계불교를 바로잡고 21세기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가는 영남권의 중추적인 정법 도량이며, 불자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영험한 지장기도도량입니다!!



지장보살님 기도로 아들의 허리디스크가 완치되다

허리가 안 좋은 아들이 작년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을 받던 중 통증이 심해 쓰러졌는데 국군통합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보니 허리디스크로 판명이 났습니다. 디스크가 파열되어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다음 날 오전 10시에 수술 스케줄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일 먼저 현지사 대구분원에 전화를 드려 지장보살님 100일 기도를 올리고, 그날 뜬눈으로 밤잠을 새우면서 지장보살님만 찾았습니다. 수술해도 재발해서 완치가 어렵다고 하므로 정말 큰 수술 없이 완쾌해 달라고 직장에 출근해서도 오전 내내 마음속으로 지장보살님을 찾았습니다. 점심때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세한 건 가서 말하겠다고 일단 수술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 일이라 그런지 눈물이 갑자기 쏟아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군통합병원에서 1년만에 사진을 다시 찍었는데 결과가 완전히 정상으로 나와 병원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아들보고 크게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 대구시 수성구 황금 1동 장미라

지장보살님 기도 및 공부하는 방법

매일 <지장보살본원경>을 1독 하고(분량이 많으면 몇쪽씩 나누어 읽는다) 흠부다라니를 7회 독송하고 참회발원하고 '지장보살' 청명염불을 합니다.

대구분원 지장재일 안내 :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대구분원 재일행사 안내 : 음력 1일, 15일, 23(미륵재일), 25일 오전 10시 30분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9길 20(영남대학병원정문앞) 053) 654-5557

불자 여러분들에게 정법과 사법(邪法)의 여섯 가지 구별기준을 제시합니다!!

“삿된 외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대지의 흙과 같이 많고, 정법을 만나 수행하는 사람은 손톱 위의 흙과 같이 적다!”

「잡아함경」

정법교단은 ①청정계율을 엄격하게 지키고 ②부처님의 실존을 믿으며 ③지옥·극락 등의 사후세계가 확실히 있음을 가르치고 ④영혼체가 윤회주체임을 설하며 ⑤금강경 등 경전을 중시하고 청명염불을 정통수행법으로 채택하며 ⑥부모·조상님에 대한 효행, 스승 공경과 나라 사랑, 이타의 보살행을 핵심 수행덕목으로 삼고 실천하는 교단입니다.

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요. 생전에는 법체(法體)라고 하는데 입적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다르마를 뜻하는 법에 몸을 뜻하는 구(軀)를 붙이고 제안을 했어요. 진리의 시신이라는 뜻이 담겨있죠.”

송 교수의 제안에 따라 대한불교는 ‘효봉 스님의 법구는 조계사에서 모시고...’ 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고 이는 일간지에서도 따라 쓰기 시작하면서 법구는 ‘법 높은 스님의 시신’을 뜻하는 용어로 자리를 잡았다. 효봉 스님은 일제 때 파사를 지내다 금강산에 들어가 출가를 했고 조계종 종정까지 지냈다는 사실이 크게 화제가 되었다. 물론 불교전문지인 대한불교에서도 스님의 일대기를 연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를 송 교수가 맡게 된다.

“다비식이 끝나자 연재를 위해 전국을 순회했어요. 상좌 현호 스님을 따라 효봉 스님의 일생을 취재하고 의문이 생기면 법정 스님, 보성 스님, 구산 스님 등의 구술을 받아 취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연문 최초로 ‘효봉 대종사 일대기약술’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했죠.”

송 교수는 1968년 대한불교신문 기자를 퇴임하고 동국대 총장 비서실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그리고 대한불교 시절 만났던 부인 김혜자 씨와 결혼을 한다. “아내는 영화역대 출신으로 대한불교를 이끌었던 이한상 거사가 경영하던 풍전산업의 비서였어요. 기독교 집안 출신에 대학까지 미션스쿨을 나왔으니 아내는 제가 교회에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신혼 초에는 크리스마스 때 아내가 다니는 동대문 교회를 따라 나가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내가 저보다 더 신심 깊은 불자가 되었답니다. 70이 넘어 제가 가장 보람되게 생각하는 것은 아내와 제가 함께 절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스님의 손자가 기독교인 아내를 포교했으니 정말 보람될 수밖에요. 또 서로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요.”

월간 <불교사상> 창간

1972년 5월 송 교수는 대한불교 편집국장으로서 재부임하게 된다. 재임사한 불교신문은 사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신문사는 조계종 총무원 직영체제로 바뀌었고 사무실은 명동의 풍전산업 사옥에서 당시 총무원이 위치해 있던 동국대 사무실로 이전을 한 상태였죠. 사장은 총무원장님이 맡으셨고 종단의 중진 스님들이 모두 편집위원이셨어요. 당시 같이 일했던 동료로는 업무국장을 맡으면서 신문을 보급하는데 공헌한 이진호 거사, 동대신문 후배이기도 한 선원민 기자 등이 있었죠. 그해에 불교 신자였던 이후라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하고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자 북한사찰을 주제로 특집 기사를 내보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북한 사찰을 주제로 했던 ‘영명, 북한의 본말사람’ 연재는 유점사, 성불사, 귀주사, 패엽사, 석왕사, 법흥사, 보현사 등의 옛 사찰을 곁들여 크게 소개 했는데 운허 스님의 유점사에 대한 회고와 이은상 선생의 성불사 이야기는 명문이었다고. 이렇게 편집국장으로서 1년을 보낼 즈음 송 교수는 당시 총무원장 정경 스님으로부터 주필직을 제안 받게 된다.

“인천대 전임강사로 발령받는 그 이듬해까지 주필직을 수행했는데 당시 법철 스님이 편집국장을 홍사성·김인수·양범수·최정희·김윤세 기자가 함께 일을 했는데 무척 신나고 재미있게 일을 했어요. 이후에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불교신문 논설위원을 겸했죠. 그러나 기자 생활 만 4년 9개월, 편집국장 만 1년, 논설위원 5년 등 거의 12년을 불교신문과 함께한 셈이 되네요.”

송 교수는 1964년부터 대학원 공부를 시작했고 대한불교에 근무하는 동안에도 1966년 동서문화원이라는 출판사를 지인들과 창업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인천대에서 전임강사로 활동하던 1983년에는 <불교사상>이라는 잡지를 창간 한다. “불교는 철학인 동시에 종교잖아요. 지성인들에게 불교를 포교하고 교양을



송재운 교수는 ... 1938년 충남 출생으로 동국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시절 동대신문 기자로 활동했으며 1964년 대한불교(현 불교신문) 기자로 입사해 편집국장 주필 등을 역임했다. 1983년 월간 <불교 사상>을 창간 주간으로 활동했다. 도서출판 동서문화원 설립 및 운영한 바 있으며 인천대 국민윤리학과 조교수, 동국대 교수, 동국학원 전자계산원 원장, 학교법인 동국학원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사진=박재관 기자

전해주기 위한 잡지가 바로 <불교사상>이에요. 당시 총무원장이던 황진경 스님에게 불교를 일반인에게 전파하기 위한 현대적 잡지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최재구 전국신도회장을 회장으로 추대 <불교사상>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잡지는 한국불교의 점진적 발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하며 시작되었죠.”

창간호에는 구산 스님의 법어, 서정주 시인의 축시, 김동리 선생의 ‘공초 오상순 선생과의 대담’ 그리고 이형기·김장호·김병권·이정화·유안진의 에세이가 실리는 등 정당한 필자들이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불교사상> 창간호가 발행되니 감회가 깊었어요. 절집인의 손자로 태어나 월간지를 주관하게 되었으니 그 느낌이 남다를 수밖에요. 물론 대학 전임강사로 겸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1년 만에 사임을 했지만 당시 함께했던 최재구 회장, 황진경 스님, 양산 스님, 송재운 형님 등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후 그는 1986년 모교인 동국대 문과대 국민윤리학과 조교수로 부임했고 1989년 부교수를 거쳐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 및 중국의 철학사

상과 윤리사상을 강의해 왔다. 또 동국학원 전자계산원 원장, 학교법인 동국학원 사무처장 등을 역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고희를 넘긴 나이이지만 그는 아직도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형)에서 운영하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발행되고 있는 실버타임즈는 7명의 실버 기자들과 함께 발행하는 8면의 월간 신문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교양을 전해주고 있다. 여기에 노인호수복지문화대학에서는 양명학과 불교 사상을 결합한 교양강좌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본지의 오피니언 칼럼, 불교로 읽는 고전 등에 원고를 기고하는 등 불교 언론과의 인연도 이어가고 있다.

“항상 노인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루어 왔던 학문을 회향하는 마음을 담고 있죠.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불교사상과 양명학을 결합한 내용의 교양서를 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령 1천호를 맞은 현대불교가 지금까지 늘 그 래 왔듯이 불교를 지키고 홍보할 수 있는 불교 언론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다스리면서 기원합니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전법일기

“엄마! 사랑해요”

“스님, 우리 집에 갈거예요? 엄마에게 이것 좀 전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에게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시댁에서 떠난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잘 지내다고 그렇게만 전해 주세요.”

싱팔라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한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캄보디아로 떠나는 여정에 올랐다. 우리나라에 싱팔라와 같은 이주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비행기 속에서 착잡한 내 마음은 석양의 아쉬움만큼 허전했다.

행복을 기대하며 온 땅, 그러나 이들에게는 가파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좋은 남편을 만나 잘 정착하고 살아가는 여성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하니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환하게 퍼졌다. 평생에 한 번 가보기도 어려운 곳, 그곳으로부터 온 딸 소식이 얼마나 반가울 것인가.

“싱팔라가 이걸 어머니께 꼭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넨 뒤 조심조심 몸치 더미를 풀기 시작했다. 뭉뭉한 신문을 벗겨내자 이번에는 공포 감싼 비닐이 나왔다. ‘누가 잃어서는 안 될 편지인가’, 하지만 그 속에서 나온 건 달라였다.

나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다급한 순간에도 쓰지 못하고 품속에 넣고 다녔을 50달러, 시댁의 구박을 피해 옷가지를 챙길 겨를도 없이 도망치듯 나온 순간에도 이 50달러만큼은 손에서 놓지 못했



그림·박구원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폭행·폭언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 되는 여성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이 현실을 더 뼈아프게 느꼈다.

싱팔라는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구박에 결국 가정폭력을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긴급보호시설을 찾았다. 더욱이 그녀가 낳은 아이는 호흡기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자신은 물론 아이까지 버림받지 않을까 두려웠던 싱팔라는 집을 나오는 것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아이만은 자신이 키우겠다고 먹이를 꼭 꺼안은 눈물겨운 모성을 지켜 보았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나는 약속대로 싱팔라의 고향 집을 찾았다. 예상했던 것보다 부모님 살림은 더 가난했다. 싱팔라에게는 무척이나 그리운 집일 것이라는 생각에 가족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 한국으로 돌아가 고향 소식을 전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싱팔라가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을은 깊은 산을 몇구비 돌아 여섯 시간이 지난 뒤 마지막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야 겨우 도착할 구석진 오지 마을이었다. 딸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다

그녀의 심정이 느껴졌다. 가족을 위해 모아 둔 그녀의 눈물이 배어 있을 그 눈 앞에서 그녀의 어머니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고깃고깃 해진 그 50달러는 “엄마, 사랑해요”, “엄마, 보고 싶어요.”라고 말하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따님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똑똑한 여성이라 앞으로도 잘 지낼 거예요.” 그제 서야 싱팔라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어쨌든!”이라며 감사의 표현을 자주 말했다.

6년의 시간이 흘러 아이는 장애아동 어린이집에 다니며 언어훈련을 받고 있다. 다문화 한부모가족이 자립을 하기 위해, 이주여성이 혼자 헤쳐가기에 어려움이 많다. 우리사회의 배려가 필요한 이유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이다. 출신 국가

는 올 때의 일이고 미래의 일은 대한민국의 앞 길이 달려 있다. 지금도 50달러에 담긴 눈물겨운 사연을 잊을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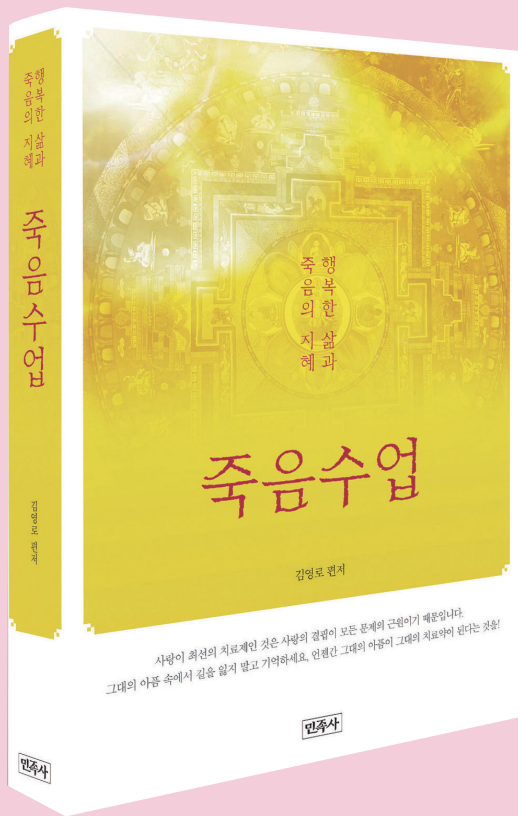


진소 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구미 대문사 주주)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행복한 삶과 죽음의 지혜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이 먼저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생이 먼저 올 수도 있음을 아는 눈 밝은 분들... 수행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 가족과 친지, 이웃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분들의 뼈저린 아픔을 위로해 주고 치유해 주는 필독서...

죽음수업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감동과 치유의 책

필자도 2010년에 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때때로 눈물이 나지만 대신에 저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제게 큰 사랑을 가르쳐 주신 귀한 스승님으로 가슴 속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또한 세상 모든 중생들을 소중한 저의 가족,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와 자매, 아들과 딸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분들의 죽음은 저의 아들의 죽음으로, 또한 저 자신의 죽음으로 다가옵니다.

김영로 편자 | 변형 신국판 384쪽 | 15,000원

민중사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론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사바에서 부르는 불이(不二)의 노래

깊이와 넓이를 모를 정도로 방대하여 필만사천대장경이라 불리는 불교경전! 불교의 핵심·진수가 담겨 단 한 권의 경전으로 손꼽히는 유마경의 세계를 드라마틱하게 펼쳐놓았다.

유마경과 이상향

“유마경의 번역과 더불어 해설 내지는 참다운 군더더기를 덧붙였는데, 이는 독자에게 본문 이해와 함께 일반적 불교 교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도였다. 불교 교리를 연구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불교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도 읽힐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도한 것이다.”

황경의 | 신국판 양장본 604쪽 | 29,500원



월호스님의 명쾌한 계승 이야기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무엇인가 될 수 없을까 의식의 지평을 넓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열어주는 책

삶은 환타지다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계승, 애착을 버리는 계승, 화를 다스리는 계승, 행복을 부르는 계승, 마음을 보는 계승 등 주제별 계승에 얽힌 스토리텔링, 현대적 교훈이 어우러져 재미와 의미를 만끽하게 된다.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완전 연소하는 대자유의 삶!

“꽃은 피었다 지고 다시 피어납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지고 다시 생겨납니다. 이른바 삶은 환타지(幻)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멋진 환타지 영화로 꽃피울 것인가, 우울하고 기본 나쁜 공포 영화로 만들 것인가?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다 내 작품입니다.”

현소 스님 지음 | 변형 신국판 328쪽 | 13,500원